



남원시 희망 나눔캠페인 참여 이웃사랑 실천

남원시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맞이하여 전북육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에서 이웃돕기 성금 2백만원, 에이스안전유리에서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목의광고협회 남원시지부는 현수막제작 등 광고업에 종사하는 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현수막 게시대 운영을 위탁받아 불법 현수막 계절 예방 등을 통해 남원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에이스안전유리는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여 꾸준한 이웃돕기 성금 기부로 이웃사랑실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 기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지난 5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부안군 산림조합에 보내주시는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매년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임업발전을 견인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학생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신포우리식품, 청하면에 식품꾸러미 100박스 기탁

(유)신포우리식품(박양진 대표)이 청하면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자 지난 8일 떡만두국 식품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떡만두국 세트는 떡국떡과 만두, 사골국 등으로 구성됐고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골고루 전달됐다.

박양진 대표는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드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촌관광 사업 발전 선도하다

부량면 벽골제마을 이희만 위원장, 2022년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 유공 도지사 포상



김제시 부량면 벽골제마을 이희만 위원장이 2022년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 전라북도지사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 유공 포상은 전라북도 내 민간인 3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관광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소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유공 민간인을 발굴 및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벽골제마을 이희만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벽골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사로서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농어촌 인성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벽골제마을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내외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주변 마을들과의 연계방안 모색 등 김제시 농

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숙박 및 체험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홍보물로 제공하고 쌀, 콩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 시 농산물 판매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전라북도 내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코로너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하고 체험 설명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며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은 "김제시 민간인 전라북도지사 포상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역량 있는 마을리더를 발굴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에 지역 인재 양성 위한 장학금 기탁 릴레이

익산시는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는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어양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상목)와 어양동통장협의회(회장 원영이)에서 총 3백만 원을 기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인재육성에 힘쓰고자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6일에는 정관장 모현점(대표 이형석)에서는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우)에 기탁했다.

또한 민경수 익산시 주택과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2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기탁 릴레이를 이어갔다.

기탁자들은 장학금을 기탁하며 우리 고장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돼 줄 것을 주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무주군에 장학금·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어져

무주 미래세대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무주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현금 51만3,970원 성금을 기탁했으며, 무주군산림조합 1천만원, 적성면북분자작목반 1백만 원과 (주)정운건설에서 2백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무주군산림조합 박철수 조합장은 "무주 지역 청소년들이 무주의 미래를 견인할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 지도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산림경영지도 우수조합으로 선정된데 이어 2022년도에는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된바 있다.

무주중학교 2학년 1반 학생들은 이날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 위해 십시일반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적성면 북분자작목반 정병주 회장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 지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성면북분자작목반은 32명의 회원이 북분자의 생산, 판매, 유통 부분 등 북분자 소득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다.

(주)정운건설 송범수 대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정운건설은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업체다.

황인홍 군수(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장)는 "고향사랑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소방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개정사항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분법 및 개정에 따른 이번 법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해 건축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개정되는 부분으로는 △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이라는 명칭 변경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 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 점검 신설에 따른 2년 이내 관리자 및 입주인 모든 세대 점검 진행 등이 있다.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자체점검 대상의 관계인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숙지해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화재예방을 위해 '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하면 벨이 울려 초기에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소방시설이다.

언론매체, 지역 전광판, SNS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계지, 제조일자, 외부 손상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b>전주매일</b>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사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6-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6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